KU MC

고대안암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NEWS

발행인 | 손창성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전화 : 1577-0083 Fax : 02)920-5770 · 홈페이지 : http://anam.kumc.or.kr

2008 12 December

발행 | 12월 26일 · 월간 · No.21

고려대 안암병원, ♥ 2008 Love Story ♥

인술의 실천, 그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졌다.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 활동이 예년에 비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위기 때일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늘어난다. 사회공헌 활동은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 전체가 공유하며 주요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의 선두주자로써 다양한 방면에서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올 한 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2008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안암병원은 희귀 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며 선천성 양측 난청, 양측 대퇴골 회전 변형, 정신지체, 뇌성마비, 극소저출생체중 등 다양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치료비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인근 지역 독거노인,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매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고액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미숙아에게 기금을 전달,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안암병원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혜택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의료원은 IBK 기업은행, 한국일보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가족 초청 치료비지원 협약' 을 맺어 인술실천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신한은행과 연계해 경북 문경읍 생달리 '오미자마을' 과 1사1촌 자매 결연을 맺고, 30여명의 의료봉사단이 100여명의 마을주민의 진료상담, 피부마사지, 영정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의료봉사 협약을 맺은 혜화동 성당 라파엘클리닉, 한빛 맹학교 등과는 의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과 장애우들에게 정기적으로 각종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인술 펼쳐

교직원들도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몽골인 임산부의 어려운 사연을 듣고 교직원들은 500여 만 원을 모아 도움을 주어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으며, 가정의학과 의료진들이 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급여 끝전을 모아 만든 성금을 기증하고, 성북구 노인회, 나눔의 집, 안나의 집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푸짐한 선물을 나눠주며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외에도 SBS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음악회, 여성암환자를 위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강습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의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암병원은 성북구, 강북구와 함께 원격진료가 가능한 유헬스케어 시스템(U-Health Care System)을 본격 가동했다. 지역구민이면 누구나 유헬스케어 홈페이지에 무료로 가입, 건강자료를 주기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 건강 상담을 해주는 등 구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앞장섰다.

400여명의 환자에게 연간 약 10억원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이와 같은 안암병원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일수록 더욱 나서서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과 소외 계층을 찾아야 우리사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안암병원은 외부기관 등과 협력해 2008년 총 약 10억 여 원을 400여명의 환자에게 치료비 및 장학금으로 지원했으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설 예정이다.

Contents

P.2 스페셜 리포트1 _ 소아내분비, 성장클리닉
P.2 스페셜 리포트2 _ 아프리카에 내린 인술의 단비
P.3 이부서 이사람 _ 박미숙 수간호사, 장영은 간호사
P.6 병원생활 TIP _ 1577-0083 콜센터
P.7 뉴 메디컬트랜드 _ 말기간암치료, 새길 열렸다

✱ 2008 안암병원 월별 사회공헌 프로그램

1월
- 생명나눔실천본부, 나무액터스, 한국심장재단, SK knights 등 자선기금 기부
- 끝전기금 전달(성북구 노인회, 나눔의 집)

2월
- 한국심장재단, 세이브더칠드런, 한국복지재단 등 자선기금 기부
- 고대법대교우회 자선기금 기부

3월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건강 상담 실시
- 진료비 및 무료간병인 지원(30명)기금 기부

4월
- SBS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안암병원 여교직원 자선기부

5월
- 우즈베키스탄 미숙아 치료비 지원
- 소아청소년 당뇨 환아 지원 사업 (춘계 일일캠프)

6월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건강 상담 실시
- 진료비 및 무료간병인 지원(31명)

7월
- 라파엘클리닉 의료복지 협약 (외국인 노동자대상)
- 가정의학과, 환자 치료비 기부

8월
- 한국아이닷컴 지원금 전달
- 한빛맹학교와 지정병원 의료협약 체결
- 외국인근로자 가족치료비 지원협약체결

9월
- 하나금융공익재단 요양시설과 협력병원 체결
- 병원교직원 미숙아 세쌍둥이 남매 의료지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515매 지원

10월
- 신한은행 공동 1사1촌 의료봉사 (경북 문경 생달리 오미자체험촌)
- 희귀, 난치성질환자 및 척추측만증 의료지원

11월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 지정병원 의료협약 체결
- 생명나눔실천본부 자선기금 기부

12월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 및 장학금 지원 (고대법대교우회, 인송문화재단)
- 여성암환자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 개최

스페셜 리포트 1

키 작고 뚱뚱한 우리 아이, 걱정마세요!

최근 급증하는 소아비만, 당뇨질환을 비롯해 키성장까지 원스톱진료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평생 질환으로 이어져

키가 작다면 호르몬 치료 병행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선 골고루 먹는 영양섭취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콩, 두부, 우유 등과 같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와 함께 거르기 쉬운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중에서도 골격과 근육발달을 위한 전신운동 즉, 줄넘기, 수영, 스트레칭 체조와 농구와 같은 구기운동이 좋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이 수면 1-2시간 후 많이 분비되므로 너무 늦게 자지 않고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깊은 수면이 될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해야 한다. 성장체조도 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경우는 성장호르몬제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성장호르몬 투여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터너증후군과 같이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물론 가족성 저신장 아동도 지나치게 또래에 비하여 키가 작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른 나이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시중에 키를 크게 한다는 각종 약품들과 보조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야만 한다.

어른 같은 아이 혹시 성조숙증?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의 아이들보다 키와 체중이 크면 막연히 좋아한다. 하지만 아이의 발육이 빠르다고 해서 성장이 완료된 후에도 큰 키를 갖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금물.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호르몬이 적당히 분비돼야 하지만 '성조숙증'으로 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 여아는 너무 이른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닫혀 초등학교 4-5학년 정도 되면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있다. '성조숙증'은 이른 나이에 성호르몬 분비가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남아는 9살 이전 고환이 커지고, 여아는 8살 이전에 유방이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성 조숙증은 여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젖가슴이 발달하는 신체변화가 뚜렷해 남아의 성조숙증 보다는 발견하기 쉽다. 이기형 교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평균 신장은 남아 120cm, 여아 119cm인데, 부모의 키가 평균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의 키가 또래 보다 7~8cm 이상 너무 크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는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사춘기발달과 성장 속도를 나이에 맞도록 조절하는 호르몬 제제를 1달에 한번 주사하여 성장판이 일찍 닫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아비만 성인병의 단초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 숫자가 증가하고, 일단 늘어나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쉽게 이어진다. 또,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 합병증도 일찍 생기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허리둘레가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나간다면 성인이 됐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다. 이와같은 소아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야만 한다. 비만인 아이들은 보통 또래들보다 음식을 빨리 먹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도록 지도해야 한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또 키를 자라게 하는 우유도 하루에 500cc이상 마시는 것은 비만의 악화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절해야 한다. 식사습관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비만한 아이들의 운동법은 심하고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이 좋다.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4~5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비만도를 측정하고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통해 성인병 유무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문의 |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02)920-5650
도움말 |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

스페셜 리포트 2

아프리카에 내린 인술의 단비

보츠와나, 짐바브웨 의료진 파견해 한달 간 해외의료봉사 시행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은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 4일까지 22일간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소아청소년과 한재준 교수와 응급의료센터 박미숙 수간호사, 대외협력실 김윤섭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오지를 찾아 문화, 인종, 종교, 국경의 갈등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상생과 나눔의 실천을 실시했다.

하지만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품 조달과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질병에 걸려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음에도 충분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다. 하지만 봉사팀은 국가에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보츠와나 후드푸드(부시맨 이주촌)마을 및 짐바브웨 의료 사각지대 까지 방문해 총 15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한재준 교수는 "이번 아프리카 의료봉사는 다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나눔과 봉사가 고려대의료원의 핵심가치중 하나인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국내·외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인술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짐바브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였다. 의료봉사팀은 진료 종료 후 마을 부근의 클리닉을 방문해 잔여 의료약품 및 재료를 현지 병원에 기증해 현지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아프리카의 작가' 라고도 불리우는 사진작가 김중만씨도 동행해 아프리카의 황폐한 삶의 현실과 새로이 솟아나는 희망을 사진에 담았다. 또한, (주)아디다스코리아의 협찬으로 축구골대를 세웠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축구골대는 단순한 골대가 아닌, 가난에 찌든 그들에게 축구는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다.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개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의 '아프리카 골포스트 희망기행'은 남다른 사랑의 실천으로 평가받았다.

이부서 이사람

휴전없는 응급의료 현장의 숨은 공로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받은, 응급의료센터 박미숙 수간호사

응급의료센터 박미숙 수간호사는 지난 11월 26일 '2008 전국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간 응급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미숙 수간호사는 생명전선에서 전두 지휘하는 엄격함을 보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눈빛과 손길만큼은 따뜻하고 정교하다. "처치는 저희에게 순간일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박미숙 수간호사가 생사가 엇갈리는 이 현장에서 보람과 눈물을 몸소 느껴온 지도 꽤 오래. 지금은 병원 환자들을 돌보는 일만이 아니라 의료인 및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며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대한심폐소생협회, 병원응급간호사회에서 집행부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바로 응급의료센터다. 1분 1초 차이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귀중한 생명들을 위해 응급의료센터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채, 모든 의료진들은 구슬땀을 흘린다.

박 수간호사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저희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료진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해요. 그러기에 이 상은 응급의료센터 모두의 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저 제가 대신 받은 것 뿐 이에요." 라는 겸손의 말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하지만 어렵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가고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라며 포부를 전했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한들 생명의 가치와는 바꿀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박미숙 수간호사의 행보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앞으로도 이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과 갈채를 보내본다.

환자들의 희망천사

지독한 고독의 시간 보내는 환자와 함께하는, 무균실 장영은 간호사

무균실 장영은 간호사는 특수병실에서 가장 예민하고 조심해야 할 환자를 대하는 만큼 늘 환자들 생각에 여념이 없다. 사실, 사람들은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외롭다. 하지만 그 순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 고맙고 따뜻함을 느낀다. 특히 항암치료 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반 환경으로부터 격리보호를 받아야 하는 무균실 환자들은 힘든 치료와 함께 고립되어 있다는 외로움이 누구보다 크기 마련. 그러기에 함께 생활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은 매우 크게 다가온다. 그 현장 속에 장영은 간호사가 있다.

장영은 간호사는 "무균실 환자들은 오랜 입원기간과 반복되는 치료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세요. 면회도 안 되고, 보호자 입실도 가급적 통제하니, 힘들어하시는 환자들을 곁에서 볼 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열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간호하고 있어요" 라며 무균실 근무 소감을 밝혔다.

장영은 간호사는 환자들이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환자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가슴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환자 곁을 지키는 장영은 간호사의 모습에서 이미 그것은 바람이 아닌 현재의 모습이었다.

"통제된 무균실에서 환자분들이 다 함께 초록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휴일 아침 가요프로를 보시며 트로트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에 코끝이 찡했다" 는 장영은 간호사. 앞으로도 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의 마음속에 외로움 대신 용기와 희망을 채워주길 바란다.

리더스 칼럼

고대병원의 뿌리

2008년은 고려의대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근대의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짧지 않은 역사인 셈이다. 1938년 설립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고려의대의 전신이다. 그 당시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문을 열었으니 병원의 역사와 학교의 역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1938년이면 일제치하이다. 일제치하 식민지교육이란 황폐하기 이를데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병원이 설립된 것이다. 그 당시 국내에는 이미 몇 개의 의학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총독부에서 설립한 관립학교와 선교사가 세운 종교계통의 학교가 그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서울(그 당시 경성)을 비롯한 지방에 5-6개의 의학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설립목적은 조선에 와있는 일본인자제들을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의 대부분이 일본사람이었고 강의도 일본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기관은 선교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학생 중 조선인은 많았으나 강의는 선교사들이 많이 담당하였다고한다.

일제시대에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의사가 귀한 탓도 있었지만 여성들을 진료할 수 있는 여자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일제시대, 서울에는 2개의 의사회가 있었는데 일본인이 중심이된 경성의사회와 조선의사가 중심이 된 한성의사회였다. 그 당시 한성의사회장이던 감탁원선생님과 그 부인이자 여자의사인 길정희선생님께서 그러한 시대상황을 절감하고 여자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여자의학 강습소를 운영하였다. 변변치 않은 시설이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여자의사 지망생들의 열정과 선배 조선인 의사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꾸려간 것이다. 그러나 강습소를 운영한지 10년쯤 되던 해에 경영난에 봉착하게되였다. 그러자 경영난에 빠진 강습소를 구하고자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강습소를 정식교육기관인 여자의학전문학교로 만들고자 발기준비회가 구성된 것이다. 발기위원장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하신 박영호선생님이 맡으셨고 김성수, 김활란, 김병로, 여운형, 이광수, 방응모, 송진우, 조만식, 주요한, 최 린, 조동식, 박흥식 들 48명의 민족지도자가 발기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렇게 모금에 의해, 우리의 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의과대학이 1938년에 탄생된 것이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당연히 학생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고 교수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으며 조선말로 강의가 이루어졌음을 말할 나위가 없다. 나중에 일제패망후 일본인 교수들이 대거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자 총독부산하 관립의대들은 교수가 없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에 고려의대에 근무하던 한국인 교수들이 전국의 관립의대에 배치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의 단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역사에서 고려의대가 갖는 특별한 의미이다.

건국 후에는 많은 의과대학과 병원들이 생겼다. 병원이 먼저 생기고 의과대학이 설립된 곳도 있고 의과대학 한 곳만 있는 단과대학도 생겼다. 종합대학에 의학대학이 인가가 난 곳도 있다.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이 만든 병원들도 있다.

사람이 태어난 것에 사연이 있듯이 각 병원이 설립된 것도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병원의 설립배경은 병원의 보이지않는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다. 고대병원은 민족의 수난시기인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의 성원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의과대학병원이 설립배경이다. 국내의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도 고대병원이 특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역사적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선각자들이 힘을 합쳐만든 민립의대병원의 의미를 지금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그 분들에게 대답해야 할 것 같다.

글 |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병원 소식

탈북자 건강위해 팔걷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11월 25일 오전 10시30분 본부회의실에서 공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노유환, 이하 공릉복지관)과 '새터민 지정병원 의료협약 체결'을 실시했다.

이날 안암병원은 공릉복지관 새터민(=탈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입원시 선택진료비 30% 감면 ▲종합건강검진 20%감면 ▲구급차 무료제공 등을 약속하고, 내원 환자에 대하여 신속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입원 진료시 병실 우선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창성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협약이 힘든 심적부담감과 어려운 환경가운데 새터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조그마한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병원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상반기 의무기록정리 최고부서 신경과

안암병원은 11월 26일(수) 본부회의실에서 '2008년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를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신경과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선정됐다. 이번 '2008년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 포상은 원내 의무기록관리 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의무기록 정리율, 병동 차트 반납율, 경과기록 충실도 등 의무기록 정리 우수부서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한편, 의무기록관리 위원회는 철저한 의무기록정리를 장려하고, 전공의들을 격려코자 앞으로 실시될 '2008년 하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 선정부터 우수 전공의 포상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흐르는 병원로비

안암병원은 12월 11일(목) 3층 로비에서 '렉서스 병원자선 콘서트'를 개최했다.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등 300여명의 관객이 병원로비를 가득 메운채 피아노, 베이스, 색스폰으로 구성된 6인조 재즈 밴드 '프렐류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하여 친근한 음악을 한 시간 가량 선사했다.

올 겨울 마음까지 녹여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안암병원이 크리스마스트리에 빛을 밝혔다. 안암병원은 12월 12일(금) 오후 5시 손창성 병원장, 김유진 경영관리실장, 장연희 간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에 점등했다.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는 2월 중순까지 겨우내 안암병원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2008 자원봉사자 송년회 개최

안암병원은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병원 대강당에서 '2008년도 자원봉사자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손창성 병원장, 장연희 간호부장 등 내빈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원봉사자들을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이명수 자원봉사자(351.4시간 봉사)가, 우수상에는 주성매 자원봉사자(153시간 봉사)가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이 수여됐으며, 수여식 후에는 오찬을 마련해 자원봉사 활동 중 얻게 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아이는 왜 감기에 잘 걸릴까요?

안암병원(병원장 손창성)은 11월 17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우리 아이는 왜 감기에 잘 걸릴까요?'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국가지정 환경성질환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어린이 감기와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자 실시됐다. 약 100여명의 부모와 어린이가 참가한 이번 강좌는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영교수가 강사로 나서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 ▲이른둥이 건강 지키기 에 대해 소개했으며, 참석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알레르기 피부 반응검사 및 상담을 실시했다.

양평에 고대병원 친절리더가 떴다!

안암병원 친절리더팀은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친절리더 3기 워크숍'을 개최했다.지난 8월 출범한 친절리더 3기 24명을 비롯해 총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Feel통 친절리더(느낌이 팍! 통하는, 꼭 필요한 것만을 담는 친절리더)'를 주제로 열렸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소통의 방법, 병원 모니터링 등에 대해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친절리더 3기 막내 53병동 김신희 간호사는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친절리더에 참가하게 됐는데 친절도 모니터링을 위해 병원 전체를 돌아보면서 평소 모르고 있었던 모습들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심혈관센터 고경정 간호사, 해외 학회에서 연제 발표

간호부 고경정 간호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래플즈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심장박동과학연구회(APHRS 2008)'와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심방세동 심포지엄(APAFS 2008)'에 참가해 심장병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고경정 간호사는 심혈관센터에서 공동연구로 이루어진 장기간 인공심박동기를 가진 환자에서 새로이 발현한 심방세동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전기생리학적, 혈청학적 예측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고경정 간호사는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심혈관센터에서 인공심장박동기를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 세심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병원 소식

'2008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보고서 발표회' 개최

안암병원 간호부는 12월 10일 간호부 교육실에서 '2008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보고서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5일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을 발표한 이후 각 부서에서 진행해 온 연구 사항을 보고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서별 논문의 주제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장암 환자의 감염예방 교육이 자가간호 지식과 자가간호 수행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63병동) ▲경동맥화학색전요법 후 상복부 통증완화를 위한 발마사지 효과(66병동) ▲수

술 후 통증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71병동) ▲암성 통증 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82병동) ▲중환자실의 억제대 사용에 관한 연구(내과 중환자실)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이경숙 · 조규은 방사선사 '국전'서 입선

안암병원 이경숙(오른쪽, 영상의학과 CT실) · 조규은(종합건강검진센터)방사선사가 지난 11월 28일 '2008년도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한국화 부분』에서 입상을 수상했다. 한국화라는 쉽지 않은 회화영역을 선택한 두 사람은, 바쁜 근무 일정에도 주경야독하며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고려대 평생교육원 동양화과에 입학해 그 솜씨를 갈고 닦아 왔다. 2005년부터 그림을 시작한 이경숙 방사선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전시회 개최와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으

며, 조규은 방사선사는 이미 수년전 국전의 입상경력이 있는 영상의학과 김현태부팀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문하여 이번에 처음 입상의 기쁨을 맛보았다.

'여성암환자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 개최

안암병원 유방센터(담당교수 배정원)가 12월 4일 8층 소회의실에서 '여성암환자를 위한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유방암 수술 이후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30여명에게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유방암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 및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해 개최됐으며, 배정원 교수가 '항암제 치료 중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과 메이크업 강사의 생생한 실습도 큰 호응을 받았다.

박종훈 교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비상임이사 선임

정형외과 박종훈(43, 朴鍾勳)교수가 지난 11월 2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박 교수는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진료와 재활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가 보훈처 산하 기관으로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에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훈 교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 7차 '중환자 전문 과정' 수료식 거행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가 11월 28일 오전 10시 8층 중회의실에서 '제7차 중환자 전문간호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수료식에는 손창성 병원장, 장연희 간호부장, 간호관리팀장, 병동간호팀장, 외래특수간호팀장 등 내빈을 비롯한 교육생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손창성 병원장은 교육과정 평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들에게 상장과 함께 상품권을 수여했으며, 수료식 후

에는 다과회를 마련해 교육과정시 얻게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구 간호사회 "금연 예방 캠페인" 실시

성북구 간호사회(회장 조윤수,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관리팀장)는 12월 2일(화)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금연은 가족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주제로 금연예방 캠페인 및 무료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200 여명의 시민들에게 건강의 기본이 되는 혈압, 혈당체크 및 건강상담을 함께 시행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또한 폐 모형과 흡연측정기를 활용하여 시각적 교

육을 실시해 본인은 물론 가족을 위해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08 하반기 지역구 의사회 연수교육 성료

안암병원은 11월 13일 오후 6시 지역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개원의들에게 최신 의료지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의사회 소속 개원의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는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 산부인과 김탁 교수, 홍순철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이은숙 교수가 연자로 나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치료, 호르몬 대체요법, 임신중 약물상담(계획 임신에서의 기형유발 물질관리),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최근동향 등 각 분야 최신지견에 대해 소개했다. 손창성 안암병원장은 "오늘과 같은 정기적인 연수교육이 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됨은 물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용길 보건관리자, 서울지방노동청장 표창

안암병원 건강관리실 백용길 보건관리자는 11월 12일(수)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수상한 백용길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들을 위한 병원 맞춤형 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의 보건의식을 한층 높여왔으며 원내 직원들을 위한 건강증진 운동과 상담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노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용길 보건관리자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표창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이며, 병원은 복잡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친절리더 칼럼

안암골에 3기 새내기 친절리더가 떳다!

친절리더로서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국내 •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오바마 미대통령의 당선일 것이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은 청소년기를 거친 젊은 대통령의 당선은 경제 한파로 위기를 느낀 미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힘든 시련을 이겨보고자 강력한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에게 기대는 마음은 안암병원의 3기 새내기 친절리더들에게 기대는 희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올 한해 안암병원 친절리더들은 내 • 외부 고객 만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

Fun Fun Smile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모한 포스터의 당선작을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킬 겸 직접 교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웃음의 서약식' 이라는 제목으로 교직원들이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예쁜 꽃을 만들며 고객을 맞이할 때 밝은 웃음으로 대하겠노라 다짐을 했었다. 고객들을 대할 때 웃음을 잃지 않고 늘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겠다고 손가락에 힘을 모아 꾹꾹 누르며 약속을 하였다.

또한 출근하는 교직원과 고객들에게 박카스를 드리며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를 외쳤다. 친절리더의 마음과 음료수에 담겨 진 정성은 아마도 아침 출근 시 피곤했던 기분을 한방에 날려 보냈을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하얗고 환한 미소로 고객들에게 인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건강한 웃음, 우리는 한 가족' 이라는 취지 아래 치약과 칫솔을 나눠주기도 하였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에는 '오늘도 시원하게 웃는 당신께' 로 더위를 날려 버릴 아이스 커피를 나눠주며 잠시나마 더위를 이겨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가을날의 전설(?)로 남을 은박지 속의 찐 고구마는 아침 일찍 병동 간호사실까지 직접 전달되었고, 고구마를 찌면서 들어간 정성까지 더 해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는 친절리더 3기 출범이라 하겠다. 8월에 양성교육이 시작된 24명의 친절리더들은 이미 지난 11월에 수료식을 마쳤으며, 이제 안암병원의 이미지를 한층 끌어 올릴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앞으로의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친절리더 52병동 수간호사 문영순

병원생활 Tip

1577-0083 고객도우미_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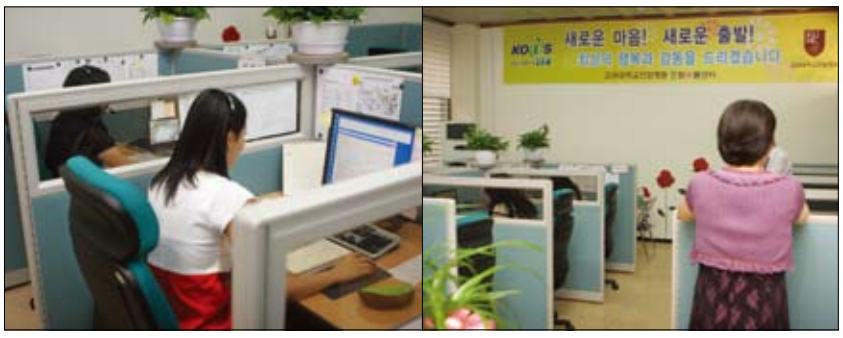
진료예약 이렇게 편리할 줄이야.

고려대 안암병원은 '콜센터' 를 본격운영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1577-0083' 번호를 통해 운영에 들어간 콜센터는 기존 각 과와 대표번호로 분산되어 있던 예약 확인 및 문의 전화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전화를 통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원 5명이 정확한 예약 및 안내를 통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증세에 따라 종합병원의 세분화된 진료과를 연결시킴으로써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손창성 병원장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는 없겠지만 병원 이용시 최대의 만족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제 시작한 안암병원 콜센터는 안암병원을 찾는 초진 환자분들의 예약을 돕고 특화된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통화지연을 방지하고 예약 성공률을 높여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 최근 6개월간 운영해온 콜센터의 성과 역시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암병원에 분산되어 있던 전화예약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통화률을 높였고 작년대비 초진 전화예약 건수 역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콜센터는 예약 외에도 진료 상담, 복약 상담, 검사전 주의사항 안내, 진료변경 및 취소 서비스 등을 담당해 환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문화 정보

어두운 세상의 또 다른 보고서

- 눈먼 자들의 도시 -

세상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뒤이어지는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 깊은 곳의 자리잡은 공포를 몰고 올수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단어.

'만약'

하지만 만약 눈이 먼다면 어떻게 될까란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알수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주제 사라마구의 책 '눈먼자들의 도시' 는 이렇게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눈이 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바이러스의 공포가 혼재하는 세상을 터널 속에 불빛을 비추듯 그리고 있다. 한 도시에서 이유없이 퍼지는 실명 바이러스와 격리,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를 끼워 맞춰가듯 문명의 수단을 버린 채, 인간의 욕망조차 채우지 못한 존재들로 끝없는 추락을 보여준다.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듯 사회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통제 속에서 통제되지 못한 삶이 그려지는 눈먼자들의 도시.

작가는 상황의 설명이 아닌 묘사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묘사를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주거와 사회적 관계가 눈먼 사람들의 고립이라는 상황을 통해 어떻게 변해가고 관계의 존재가 변화하는지 추적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눈이 먼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보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시선은 아닐까.

의학 정보

난청을 극복하는 정확한 보청기 사용과 인공와우의 선택

잘 듣지 못하는 괴로움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서 통신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회의 등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의도중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또한 자리에 앉을 때에도 잘 들리는 쪽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불편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난청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 못 듣는 어린이들부터 성인, 노인연령층까지 전 연령층에 골고루 있습니다.

정확한 보청기의 선택과 사용

보청기는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안경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주파수별로 떨어져 있는 청각을 회복시켜서 어느 높낮이의 소리라도 잘 듣게 합니다. 또한 청력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보청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 자신이 넘치며 회의 중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들도 정상아동의 발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어떤 종류의 보청기가 적합한지, 그 특성은 어떠한지 , 어느 쪽에 착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귀의 모양이 다르므로 귀의 본을 뜬 다음, 1주후에 다시 방문하여 자신의 귀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인공와우이식이란 ?

달팽이관 (와우) 의 질환으로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남아 있는 청신경을 전기자극함으로써 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와우이식기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와우이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양측고도 감각신경성난청 환자들 (전혀 듣지 못하는 분) 에게 유용한 청력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활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양측 귀를 거의 듣지 못하는 분으로 보청기로 3개월 이상의 청력재활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인공와우이식을 고려합니다. 청력을 잃고 지낸 기간이 짧을수록 인공와우로 인한 혜택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선천성 농아들은 5세 이전, 특히 3세 이전에 시술할 경우 그 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

와우 이식 수술 전 평가는 총 9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과와의 협진으로 시행 받게 됩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전 평가는 2박3일간 입원하여 받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검사를 의료진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예약 후 받으셔야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검사들을 받으신 경우는 수술 수일 전에 입원하여 추가검사 후 수술받고 퇴원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인공와우이식술 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적절한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활용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환경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경적, 사이렌, 경보음, "위험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생명과 관련된 신변안전에 도움을 줍니다. 인공와우를 이식 받으면 실제로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일정한 훈련과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독화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훨씬 쉬워지며 더 나아가서 독화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말소리를 듣게되면 자신의 말하는 능력도 향상되어 진정한 대화와 교류의 장이 열립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가사일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움말 |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
문의 | 이비인후과 외래 920-5485

뉴메디컬트랜드

절제불가능 말기간암 치료, 새 길 열렸다!

고대 안암병원 간암치료팀, 말기간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법 국내 첫 도입
1-2회 시술만으로도 생존율 2배 이상 높여

그동안 절제수술이 불가능했던 말기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국내서 첫 시도돼, 간암 환자들의 생존률과 삶의 질 향상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간암치료팀[영상의학과 김윤환, 조성범, 박상준 교수, 소화기내과 엄순호 교수, 핵의학과 최재걸 교수]이 호주 시드니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왕신창 교수와 함께 절제 불가능한 말기 간세포암 환자에게 간동맥색전술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시술이 이루어진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만 시행되어 온 이 치료법은 지난 2006년 의료시설에 따라 복합형 치료형식, 용량 결정을 표준화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발족한 국제기구인 '방사성 색전 밀봉선원요법 종양학 컨소시엄(REBOC)' 의 합의에 기초해 절제 불가능한 간암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 선택항목으로 격상되는 등 국제적으로 공증된 치료법 중에 하나이다.

이 시술방법은 기존 간동맥 색전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되지만 간암 조직에 이르는 간동맥에 얇은 관을 삽입한 후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사용하는 대신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Yttrium-90(이하 이트륨)' 을 직접 도달케 하여 방사능으로 간암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조직의 원인, 크기, 위치, 수 등과 관계없이 간에 있는 악성종양에만 고용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간조직에는 전혀 손상없이 악성종양조직만을 파괴하게 된다.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횟수도 기존 색전술 10회 이상에서 1-2회 치료에 국한되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1시간내외 시술이 이루어지며 통증이 거의 없고 환자상태에 따라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기존 색전술 시술때에는 광범위한 암조직에 열발생으로 인한 통증이 컸고 통상 최소 3-6일간 입원해야만 했다.

치료결과도 기존의 치료법보다 대장암으로부터 전이된 간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을 2배이상, 그리고 TTP(Time to Progressive Disease : 치료후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를 5배 이상 증가시켰고, 원발성 간암인 간세포암인 경우에도 생존을 9.4개월까지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Journal of Surgical Oncology 2004;88:78-85, 1998 Elsevier Science Int. J. Radiation Oncology Biol. Phys., Vol.40, No. 3, pp. 583~592)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이 시술법은 2002년 미국 FDA와 2003년 유럽 EU를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뉴질랜드 등에서 전세계 약 8,000여명의 간암환자에게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정식 사용 허가를 득해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12월 10일과 12일 최초로 한국인 4명에 대해 이 시술법이 이루어졌으며, 공동연구팀으로 국내 유수의 9개 종합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서울대, 서울아산,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국립암센터, 원자력, 가톨릭 강남 성모, 부산대, 전남대병원)에 내년 상반기에 관련 시술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내 최초 도입해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는 "그동안 치료자체가 어려웠던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전이성 간암환자들에게 기존 치료법보다 1-2회 치료만으로도 더 큰 치료효과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술법" 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한국인들에게 특히 빈발하는 간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술법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소화기 센터 외래 920-655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2008년 12월 19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화,목	화,목	간질환,위장관질환
		*김 창 덕	월,수,목	화	담석,췌장질환
		*엄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질환
		*진 윤 태	수,금	화,수	위장관질환
		*서 연 석	월,목	월,금	간질환
		금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질환
		권 용 대	화	금	담석,췌장질환
		박 상 훈		월,금	위장관질환
내과 3층 ☎5410	신장	*김 형 규	월,금	화	고혈압,신장질환
		*조 원 용	수,금	월,수	고혈압,신장질환
		*조 상 경	목	수,목	고혈압,신장질환
		*부 창 수	화	월,금	고혈압,신장질환
		우 영 석	월	목	고혈압,신장질환
		김 명 규		화,금	고혈압,신장질환
	감염	*김 민 자	화,금	수	감염질환,열병클리닉
		*박 윤 선	월,수	화,목	감염비환,열병클리닉
		손 장 욱			해외연수(2008.08~2009.08)
		김 정 연	목	월	감염질환,열병클리닉
	혈액	*김 병 수	수	화	빈혈,자반증(멍)클리닉
		이 세 련	목	월	빈혈,자반증(멍)클리닉
	류마티스	*지 종 대	목,금	월,금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내 과 일 반 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내분비센터 3층 ☎5421		*최 동 섭	화,목,금	목	내분비
		*김 신 곤	월,수	화,수	내분비
		*김 희 영	수	월,화,수	내분비
		이 윤 정	월	월,목	내분비
		박 수 연	화,목	금	내분비
		박 주 리	수		내분비
암센터 2층 ☎5595 9581 0606	종양혈액	*김 병 수	월,화,금	수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혈액질환
		*김 열 홍	수	월,목	위암,소화기암,항암치료
		박 경 화	목	화,수,금	유방암,부인과암
		이 세 련		금	혈액암
	방사선종양	*김 철 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소화기암,두경부암,뇌종양,유방암
		*박 영 제	화,수	월,화,수,금	부인암,비뇨기암,림프종,소아종양,육종
	소아청소년	*이 광 철		화	소아혈액종양
	정형외과	*박 종 훈	목		종양
심혈관센터 4층 ☎6700	순환기	*심 완 주	월,목	화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김 영 훈	월,화,금		부정맥,심박동기(월요일:초진만)
		*임 도 선	월,목	월	심혈관중재시술(초진클리닉:월~금 8:30~10:30)
		*박 희 남	화,목	화	부정맥,심박동기(초진크리닉:수,금 8:10)
		*홍 순 준	수,금	수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박 성 미	화,금	수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최 종 일		월,수	부정맥,심박동기
		박 재 석		금	심장질환
		김 용 현		목	심장질환
		*안 철 민	월	목,금	협심증,고혈압,심혈관중재시술
		장 진 근		월	심장질환
		곽 재 진	수		심장질환
	흉부	*선 경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손 호 성		월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
	소아	*손 창 성		월	소아심장크리닉
호흡기센터 2층 ☎5436	호흡기	*유 세 화	월,수,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인 광 호	화,목	월,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이 상 엽	월,금	화,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강 은 해		월,목,금	호흡기,중환자의학,폐렴
		이 은 주	화	수,금	호흡기질환
		하 은 실	수	화	호흡기질환
	흉부	*김 광 택	화	목	폐,기관지,식도외과,다한증,하지정맥류
		*선 경	목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박 형 주	수		오목가슴클리닉
		*이 성 호	월	월	흉곽기형,폐,식도질환,하지정맥류
		*손 호 성	금	월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월/F층)
		*강 문 철		화,수	일반흉부질환
		손 국 희		금	일반흉부질환
외과 3층 ☎5401	위장관	*김 종 석	수	월	위암,상부위장관 질환
		*박 성 수	화	목	위암,상부위장관 질환 (로봇수술)
	간담췌	*김 영 철	화	목	간,담도,췌장질환
		*서 성 옥	월	수	간,담도,췌장질환
		김 정 윤	금	화	간,담도,췌장질환
	대장항문	*김 선 한	금	수	대장,직장,항문질환 (로봇수술)
		*김 진	목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로봇수술)
		최 동 진	목	월	대장,직장,항문질환
		우 시 욱	화	금	대장,직장,항문질환
	이식혈관	박 진 완		월	장기이식(신장,간,췌장),혈관질환,하지정맥류,당뇨족
	소아외과	부 윤 정	수	금	소아외과질환
유방센터 2층 ☎6670	유방내분비외과	*배 정 원	화,목	화	유방암,갑상선암
		*이 은 숙	수	월	유방질환
		*우 상 욱	월	목	유방암,갑상선암,부신질환,부갑상선
		김 훈 엽	금	월,수	갑상선암,부갑상선종양,부신종양 (로봇수술)
정형외과 3층 ☎5430		*박 상 원	화	목	인공고관절,고관절
		*채 인 정	목	화	무릎,인공무릎관절,관절경,척추
		*이 순 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사지연장술,족부
		박 종 웅	수		수부,미세수술
		*한 승 범	월,금	금	인공슬관절,골절,외상학
		*박 종 훈	화,목	화	종양,외상
		*정 웅 교	월,금	수	어깨,팔꿈치,스포츠의학
		*박 시 영	수	월,수	척추,외상
		이 대 희	화	목	무릎,스포츠의학
신경외과 3층 ☎5550		*이 훈 갑	월	목	소아신경외과,뇌종양,뇌혈관질환
		*서 중 근	화,목	수	척추질환,척추외상
		*정 용 구	수,목	화	뇌 및 척추종양,뇌혈관질환,두통
		*조 태 형	월,수		척추질환,척추외상
		*강 신 혁	금	목	뇌혈관질환,뇌종양,두부외상
		*신 일 영	화	월	뇌혈관질환,뇌기저부종양,두부외상,안면경련,삼차신경통
		태 현 석		월	두부외상,척추질환
		박 경 재		금	두부외상,척추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월,금	귀성형
		*안 덕 선	월	목	손저림증,화학박피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레이저,미용성형,안면마비
		*이 병 일	월,수	수	미용성형,유방성형,미세수술,안면재건
		*김 덕 우	화	목	흉터성형,지방성형,두경부종양,레이저
		정 성 호	화,목		화상재건성형,수부외상,욕창및하지손상
		일 반 의	월,수,목,금	화,수,금	일반재건성형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목	월	소아 심장,유전,신생아질환
	*정 지 태	화,금	화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환경성질환)
	*이 광 철	월,목	목	소아 혈액종양,대사질환
	*박 상 희	화,수,금	수	소아 소화기,청소년
	*이 기 형	금	월,화,수	소아 내분비(저신장,갑상선,당뇨,비만)
	장 기 영	월		소아심장질환
	*유 영	월,수	목,금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환경성질환)
	*이 장 훈	목,토	월,금	신생아질환(토-1,3주)
	최 익 선		수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1,3주)
	한 재 준	월,수,토	금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질환,간질환,주기성구토증:토-2,4주)
	일 반 의	월~금	월~금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소아클리닉	장 기 영 (월:오후):소아심장: 심장초음파검사			
	이 광 철 (화:오후):소아 혈액종양			
	박 상 희 (수:오후):청소년			
	임 형 은 (매주 화:오후)소아 신장질환			
	이 기 형 (수:오후)소아 내분비-저신장,당뇨,갑상선,소아비만			
	은 소 희 (1,3주 목:오후)소아 신경생리			
안과 2층 ☎5520	*조 윤 애	월,목	월,목	사시,약시
	*김 효 명	화,목		백내장,근시교정,각막
	오 재 령			해외연수(2008.2~2009.1)
	*유 정 권	금	월,화	녹내장,백내장
	*김 성 우	월,금	금	망막,유리체출혈
	서 영 우	월,화	금	사시,약시,안성형
	강 수 연	수	화,수	각막,백내장
	일 반 의	수	화,수,목,금	안과,일반학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수,금		노인학,골다공증,만성질환,호스피스
	*김 도 훈	수,목	화,금	건강증진,노인병,비만
	박 창 해	월,화	월,목	불분명한증상,흔한질환,노인병,금연,영양관리,피로
	이 승 환	화,목,금	수	가정의학,비만
	일 반 의	월~금	월~금	일반가정의질환
정신과 2층 ☎5505	*이 민 수	월,수,금	월,수	우울증,스트레스장애,정신분열증
	*김 린			(2009.08 해외연수)
	*이 헌 정	화,수	화,목	기분장애,수면장애,정신분열증
	*강 이 헌	목	화,목	우울증,불안장애,노인정신의학
	강 승 걸	목,토	화,금	일반정신의학(토-3주)
	이 화 영	화,토		일반정신의학(토-1,2,4주)
	일 반 의	토	월,수,목	일반정신의학
신경과 2층 ☎5510	*이 대 희	월,목	화	뇌혈관질환,치매
	*박 건 우	월,화	목	파킨슨병,운동장애,기억장애
	*정 기 영	수	월,목	간질(경련성질환,실신),두통,어지러움증,수면장애-목:오후
	*유 성 욱	화,목,금	월	뇌졸중,어지럼증,뇌혈관질환,두통(목:오전2,4주)
	송 무 현	금	화,수,금	두통,어지럼증,뇌졸중,기억장애
	권 도 영	수		근육질환,말초신경질환
	일 반 의		수,금	신경과질환
산부인과 2층 ☎5450	*나 중 열	화	목	불임,폐경기관리,내분비질환
	*이 규 완	수	월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
	*강 재 성	월	금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폐경기관리,여성내분비
	*김 영 태	금	목	유전질환,내시경수술,탈자궁
	*김 탁	수	화	불임(체외수정),폐경기관리,골반경수술
	*홍 순 철	월	화	산과,고위험임신
	송 재 윤	금	월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Colpo시술,로봇수술
	박 현 태	화	금	부인과내시경수술,일반산부인과
	안 기 훈	목	수	탈자궁,일반산부인과
불임클리닉: 김선행(월~금 오전) / 나중열(월~금 오후) / 임신중약물,임신전건강: 홍순철(월:오전)				
피부과 2층 ☎5470	*계 영 철	월,목,금	화	건성,탈모,아토피피부염,레이저
	*안 효 현	수	월,수,금	일반피부과학,여드름,두드러기
	서 수 홍	화	목	일반피부과학,피부외과학,모즈수술
	일 반 의		월,수,금	일반피부과학
비뇨기과 2층 ☎5530	*김 제 종	수,금	수	남성과학,불임
	*이 정 구	월,목	월	배뇨장애,요실금
	*천 준	화	화,목	종양학,전립선암 (로봇수술)
	*강 석 호		수,목	종양학,요로결석 (로봇수술)
	*고 영 휘		화	일반비뇨기과학
	최 훈		금	일반비뇨기과학
	일 반 의		화,금	일반비뇨기과학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수,금		전기진단,뇌성마비,척추손상
	*강 윤 규	화	월,목	통증,관절염
	*편 성 범	목	화,수	뇌졸중,전기진단
	윤 준 식	목	목	어깨통증,척추디스크,관절염
	김 기 훈		화,금	견관절통증,척추손상,일반재활
	일 반 의	월,금		요통,견관절통증,경부통증
치 과 2층 ☎5423	*권 종 진	월,금	화	구강외과
	*서 규 원	목	목	보철과
	*임 용 규	수	월,수,목	교정과
	최 연 조	화,목	월,금	보철과
	*전 경 아	화,목	월,목,금	보존과
	민 경 기		월,수	구강외과
	지 숙	화,수	월,수,금	치주과
	일 반 의	월~금	월~금	
이비인후과 2층 ☎5485	*이 상 학	월,수	월	비과알레르기,후각,코성형
	*정 학 현	목	월,목	이과,소아이비인후과
	*정 광 윤	화,목	화	후두암,갑상선암,음성장애
	*백 승 국	수,금	수	하인두암,편도암,구인두암,두경부종양
	*임 기 정	월,금	금	이과,어지럼증
	*김 태 훈	화,목	목	비과(비염,부비동염,코성형)
	정 은 재	화	화,금	음성장애,음성성형술,편도수술,두경부질환
	장 지 원	수	화,수	이과,어지럼증
	일 반 의		월,수,금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 남 준	월~금	월~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김 윤 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조 성 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박 상 준	월,수,금	월~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강 창 호	토		근골격계질환 및 통증의 중재적시술
통증의학과 3층 ☎5529	*장 성 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이 혜 원	수		통증관리
	박 지 용	화,금	화,수,금	통증관리